日, 온라인 통한 실시간 사찰참배 '화제'

거동 불편한 이들 위해…가고시마 사찰 '묘코지'서

30분간 사찰안내 · 예불 · 법회
실시간 중계 매회 뜨거운 호응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독거노인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고립 생활에 대한 문제가 심각화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을 위로하고 온라인으로나마 바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사찰참배'가 일본에서 화제다. 일본의 온라인 매거진 '테논'은 1월 12일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찰참배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온라인 사찰참배'를 진행하는 일본 가고시마현(鹿児島)의 관광도우미 츠츠미 레이코 씨는 "처음에는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여행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리던 것이 시작"이라며 온라인 참배가 시작된 연유를 전했다.

레이코 씨는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100세가량의 어르신께서 '올해는 백중날 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니 절에 갈 수 없고, 집안 불단도 방치돼 이대로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힘들어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에 "지금까지 진행해온 온라인 여행을 관광지가 아닌 사찰로 돌려 온라인 참배를 통해 어르신들 소원을 풀어 드리자고 생각했다"고 시작 동기를 밝혔다.

레이코 씨의 생각에 기꺼이 응한 곳은 가고시마 시내에 있는 사찰 묘코지(妙行寺)였다.

묘코지 주지 이노우에 요리아키 스님은 코로나 유행 전부터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복지시설들을 돌며 봉사활동을 해왔다. 요리아키 스님은 "본 사찰에서는 '연말연시에 직접 참배를 갈 수 없지만, 적어도 법문은 듣고 싶다'는 고령 신도들의 바램에 호응해 작은 종을 들고 복지시설들을 돌며 법문하는 '찾아가는 제야의 종 법회'를 진행해 왔다"며 "거동 불편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사찰을 참배하고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서로의 경험과 방법을 살려 '온라인 사찰참배'를 시작했다. 관광도우미인 레이코 씨가 묘코지를 참배하며 안내하는 방식으로 사찰 모습을 복지시설에 생중계했다. 중계시간도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가장 부담없는 시간대에 30분 정도로 설정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온라인 사찰참배' 모습. 사진출처=테논 타임즈

해당 참배에 대한 첫 공지는 가고시마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에 전했으나, 소문을 타고 일본 각지에서 신청이 들어와 시범운영을 위해 입소자가 제일 많은 6곳의 시설에 생중계했다.

중계는 온라인 여행을 방송했던 레이코 씨의 경험을 살려, 레이코씨가 묘코지에 모인 직접 사람들을 가이드 하듯이 법당까지 길을 안내했다. 법당에서부터는 요리아키 스님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 예불을 올리고 법문을 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첫 시범운영 이후로 계속해서 각 시설과 참가자들에게서 뜨거운 호응을 얻어 정기적으로, 50개소 이상의 시설이 참가해 타 사찰들과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사찰참배를 실시한 한 시설은 "처음엔 반신반의로 어르신들의 재미를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스님이 직접 인사를 건네고 함께 경을 읽는 모습에 모두 기뻐했다"며 "특히 마음속의 불안이 가셨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후기를 전했다.

中, 티베트 불교 박해 문화대혁명 재현인가?

사찰 · 불상 철거…공개적 신행활동 제한

베이징 올림픽 개막 앞두고
종교 권리 억압 인권유린도

세계평화와 우호를 목적으로 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티베트 불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가 다시금 논란이다. 일본의 '에폭 타임즈'와 '티베트 하우스 재팬'은 1월 11일 중국정부의 티베트 불교 박해와 인권유린에 대해 보도했다.

에폭 타임즈는 현지 정보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동부티베트 지역 주민들이 건립한 30m 높이의 대불을 철거했다"고 전했다. 불상은 현재 스촨성으로 편입된 구 티베트의 닥고(Draggo)지역에 2015년에 세워진 것이다.

에폭 타임즈는 "닥고 지역은 1973년 대지진으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나온 곳"이라며 "지역 주민과 스님들의 발원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이어지는 재난을 막기 위해 4000만 위안(한화 약 75억 원)을 들여 건립했다"고 전했다.

'티벳하우스재팬'은 "해당 불상은 중국정부의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았으며, 건립 당시 지역 당국으로부터 감사장 등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을 시찰한 고위관료의 지적을 받았고, 군당국이 관련 인허가를 무효로 했다"며 불상이 철거된 사유를 전했다. 중국 당국은 단순히 해당 불상뿐만 아니라, 명령을 구실로 불상 주변에 설치된 45구의 마니차도 철거했으며, 주변에 걸린 기도깃발과 번등의 불교용품들을 무단으로 소각했다.

이와 함께 불상을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사찰인 간댄 남걜링 사원이 관리하는 강원과 학교 등에 대해 인허가 서류가 미비하고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구실을 들며 시설을 폐쇄 및 철거하고 학생들을 강제로 귀가 조치시켰다. 학교에서 기숙하며 공부하던 학생 130명의 학적은 말소해 타 학교로의 전학요청 등도 모두 무시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은 창립 이래 불교는 물론 티베트어와 영어 등 티베트 불교 교단에서 제공하는 고급교육기관으로 지역 교육거점으로 유명했다.


중국당국에 의해 철거되고 있는 학교. 사진출처=티벳하우스재팬

현지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티베트의 종교, 언어, 문화에 대한 강렬한 공격이다. 현재 닥고에서의 불교박해와 인권유린은 마치 문화대혁명 시절과 같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현시점에서는 실제로 파괴된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을 입수할 수 없다. 티벳하우스재팬은 이번 사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종교적 권리와 언어권 등 스스로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실천할 티베트 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72세 태국 노승, 태국 전역 도보 순례

1500km 걸으며 주민들 만나
무소유 · 나눔 실천 직접 보여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이 태국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72세의 태국 노승이 태국을 가로지는 1500km의 길을 도보로 순례해 화제다. 태국 일간지 '방콕포스트'와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1월 12일 노승의 순례를 보도했다.

맨발로 순례길에 오른 72세 노승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은 태국 남부 해안의 휴양지 푸켓 섬에서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이자 스님의 고향인 나콘 파놈까지 1500km의 순례를 걷고 있다.

지난 1월 9일 오전, 나콘랏차시마주 부아야이군에 도착한 스님은 길가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맞이하는 불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통적인 인사를 건넸다. 환영을 위해 나온 주민들은 스님께 화환과 식수, 음식 등을 건네며 스님을 맞이하고 가피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다. 스님은 풀을 원통형으로 엮은 봉으로 신도들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려 축복하는 태국 불교의 전통 의식으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은 출가 전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1969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이다. 2009년 비구계를 받은 뒤, 자신의 발원에 따라 매년 태국 종주순례를 실천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순례 중 신도들에게 받은 물품 대부분은 지역학교와 병원에 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님의 순례는 옛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을 위해 유행하던 담마 야트라(Dhamma yatra)라는 전통에서 온 것으로, 현대에 이 순례를 실천하고 있는 스님은 거의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스님을 환영하기 위해 길에 나온 신도는 "루앙 타 분 추엔 스님은 모든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고 선행을 행하는데 삶을 바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라며 감격했다. 현재 스님은 태국에서 무소유와 자비행의 실천을 직접 보여주는 롤 모델로 존경받고 있다. 스님은 최근 마지막 목적지인 나콘 파놈에 이웃한 콘캔주의 웡노이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英, 불교사원 인근 사격장 건설 상소 무효

삼예링 사원, 개발자 상대로
온라인 탄원서 2만 명 반대

영국 불교 사원 근처의 사격장 건설 불복 상소가 무효로 판결돼 화제다.

영국 주요 언론지 'BBC'는 1월 15일 불교 사원 근처 사격장 건설에 대한 상소 무효 소식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스코틀랜드 덤프리스 지역 삼예링(Samye-Ling) 사원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 사격장 건설 계획(클렉힐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사격장 건설 예정지는 사원을 사이에 두고 있어 삼예링 사원으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시의회의 계획에 불복한 삼예링 사원 관계자들과 불자, 인근 주민들이 시의회와 개발업자를 상대로 상고했고 '무효'로 판결 났다.

사격장 건설 계획은 애초 그것이 '주요한 발전' 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개발 업자들은 이 계획을 지역 개발업으로 처리해 승인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삼예링 주지 예셰 린포체는 "개발업자들이 우리의 평화와 화합을 위협하고 있으며 온라인 탄원서에 2만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개발업자들은 "사격장과 사찰 사이 공간은 임업이나 농업 용지이며 어떠한 물질적 변화도 겪지 않았다. 사격장 건설 시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불러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사격장 건설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사격장이 있는 지역의 범위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더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삼예링 사원은 영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던 시기에 세워진 초창기의 불교사원으로 티베트 불교 카규파에 소속돼 있다. 서유럽권의 최대 불교사원으로 꼽히는 이곳은 현재 약 60여 명의 사부대중이 상주하며 수행정진 중이다. 또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불자들이 안거와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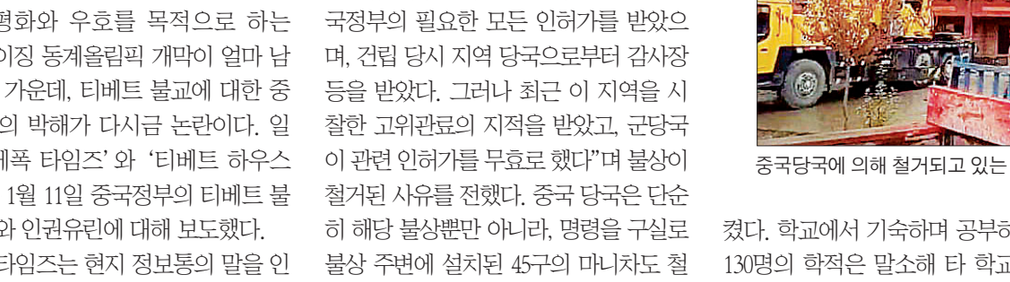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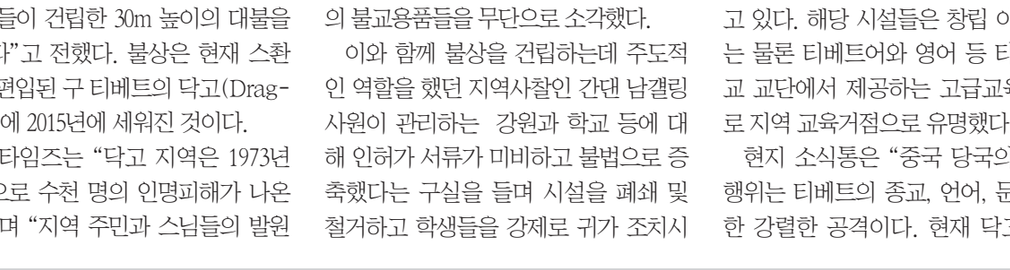
輦(연) ∞ 창립 40주년 ∞ 幡(번)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향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3단 조립식

*몸체길이 가로 650x세로 1100

*가볍습니다. 2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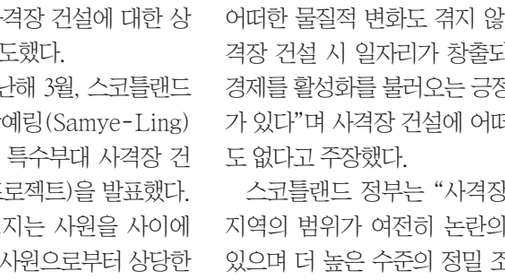

닷집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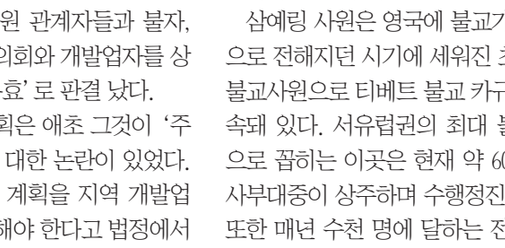

반야용선

규격 : 높이 1300 x 길이 1600

감사행사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신(퇴색 및 훼손)된 번 교환시 20% 할인금액으로 새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월 30일 까지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